하다. 만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마을과 관광업체의 결연으로, 한 관광업체가 한 마을의 특성 전통 예술을 맡아 키우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實利있는 일이라 보아진다.

넷째, 민속박물관의 확충이다.

현재의 제주도 민속 자연사 박물관을 濟州博物館으로 개칭하여 국립으로 이관하고 考古歷史部와 民俗部로 그 편재를 나누어 확장하여 自然史部를 濟州自然史博物館으로 독립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3. 傳統文化 藝術의 現代的 繼承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는 일시도 쉬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니 保存만을 강조하고 현대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保存은 현대적 계승의 밑거름이 된다. 生活樣式은 급변하여 가는데, 예술만 옛것 그대로 지켜 있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전통예술은 현대적 감각에 맞는 再創造 繼承도 요청되는 것이다. 그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전 예술 분야에 걸친다.

이 계승 재창조에 유의할 점은 첫째,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깊은 지식과 숙달된 기능이 선행돼야 하고, 둘째, 현대적 재창조에 있어 전통 문화예술의 본질을 충실히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자세히 말하면 소재, 음악의 가락, 춤사위, 연극적 기법, 거기에 담긴 정신 등이 濟州的이라야 한다는 말이다. 자칫 지나쳐서 제주 것도 아니요, 서울 것도 아니고, 西歐 것도 아닌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은 극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이 방면에 전문성이 없어 구체안을 제시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 현대적 계승의 방향만을 간단히 제시하는 바이다.

中國正史에서 본 耽羅

金　永　德(中國 延邊大古籍研究所長)

탐라는 주호국, 탐모라국, 탐라, 담라 같은 이름으로 중국정사인 25사에 가끔 나타난다. 본문은 중국정사에서 본 탐라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개하려 한다. 필자가 의거한 사료라면 25사에서 외국. 속국. 만이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들이다. 바로 그러한 열전에 탐라에 대한 기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사로서의 25사에 기술된 사료는 믿을 만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기(史記)》로부터 《청사고(淸史稿)》에 이르기까지 25사는 실록(實錄)의 전통으로 일관되었

고 《허탄하게 찬미하지 않고(不虛美)》, 《악한것을 숨기지 않는(不隱惡)》 정신으로써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저자의 출신, 세계관과 그들이 처한 시대적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25부의 역사가 거둔 성과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때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사료는 역사의 전승관계로 하여 선행한 역사저술에서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따낸 것도 자주 보게 된다. 외국, 속국, 만이 열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중국역사는 주간이고 외국, 속국, 만이의 역사는 곁가지임은 틀림없다. 거기에다 저자들은 화하(華夏)중심론의 정통사상의 고수자들인만큼 《곁가지》의 역사는 왜곡되기도 하고 본래의 진면모를 보기 힘들 정도로 간략화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방의 여러나라 가운데서 제일 먼저 문자로써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역사를 기술해 두었다는 점은 응당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조선의 3국시기 역사를 기술한 정사이다. 이 《삼국사기》도 중국정사를 상고했으며 더욱이 베껴낸 것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삼국사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저러한 결함은 있다 하더라도 중국정사의 사료만은 믿을 만한 것임을 강조할 뿐이다. 탐라에 대한 기술도 그러하다. 탐라에 대한 사료를 시대순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삼국지·위서·동이전》의 마한(馬韓) 전의 뒤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마한 서쪽 바다의 큰 섬에 주호(州胡)가 있다. 거기 사람들은 키가 비교적 작달막하고 말은 한(韓)나라와 같지 않다. 머리는 선비 사람처럼 깎고 있다. 그런데 입기는 이긴 가죽을 입는다. 그들은 소와 돼지를 잘 친다. 그들의 옷은 웃도리만 있고 아랫도리는 없이 거의 알몸이나 다를 바 없다. 배를 타고 한(韓)나라에 오가면서 장을 보아 간다.[1]

또 《후한서(後漢書)》에도 주호국에 대한 기술이 있다.

> 마한의 서쪽에 있는 섬에 주호국이 있다. 사람들은 작달막하고 머리는 깎고 이긴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 웃도리만 있고 아랫도리는 없다. 소와 돼지를 잘 친다. 배를 타고 한나라에 오가면서 장을 본다.

《삼국지》나 《후한서》나 할 것 없이 모두 주호국의 지리적 위치를 밝혀주고 있다. 즉 마한의 서쪽 바다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섬이 아니라 큰 섬이라고 쓴 것만큼 제주도임에 틀림없다. 또한 섬에 있는 주호국은 탐라의 옛이름이며 거기의 원주민은 탐라의 선조임에도 틀림이 없다. 주호국이라고, 즉 나라라고 하지만 마한이 50여국, 진한과 변한이 각각 12국이라는 그런 나라와 같은 나라일 것이다. 이 주호국의 언어는 마한과 다르기는 하지만 지리적 요인을 포함한 제반 요소들로 하여 주호와 마

1) 원문은 뒤에 초록, 中華書局版에 의거함.

한은 아주 밀접한 연대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역사 저술에서 주호국은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이 매우 저급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서(隋書)》의 기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서》 제81권, p. 1819에서

> 진(陳)을 평정한 시기에 전선 한척이 해동의 탐모라국(躭牟羅國)에 표류하여 갔다. 그 배가 돌아오게 되어 백제를 지났는데 창(昌)[2]이 아주 많은 재물을 선사하였으며 아울러 사신을 파견하여 진나라 평정을 치하하는 표를 올렸다.

또 같은 《수서》의 《백제전》에서

> 그(백제—필자) 남쪽에 수로로 석달길[3]이 되는 곳에 탐모라국이 있다. 남북이 천여 리, 동서가 수백 리나 된다. 거기에는 노루 사슴이 많이 난다. 그는 백제에 부속되어 있다.

라고 쓰여 있다. 같은 《수서》의 《왜국(倭國)》전에서도 탐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술을 볼 수 있다.

> 이듬해(대업 4년—필자)에 상이 문림랑(文林郞) 배청(裵淸)을 왜국에 사신으로 보냈다. 백제를 거쳐 죽도(竹島)에 이르면 남으로 탐라국(躭羅國)을 바라보며 도사마국(都斯麻國)을 지나는데 멀리 큰 바다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수서》의 세 대목의 기재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나라 이름이 주호가 아니라 탐모라국 또는 탐라국으로 고쳐진 것이다. 다음으로 그 당시 중국에서 왜국으로 가자면 여전히 백제를 거쳐서 간다는 것이다. 셋째로, 탐모라국은 백제에 예속되어 있었고 백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탐라의 지리적 위치와 물산을 알 수 있다. 노루 사슴이 많이 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외계에서 탐라에 대한 요해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사(北史)》의 제94권에도 위에서 인용한 세 대목 가운데 제 2, 제 3의 예와 꼭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수서》의 저자가 이세민의 휘를 기피하여 배세청(裵世淸)을 배청이라 한 것을 세(世)자를 그대로 쓴 것이 다를 뿐이다.

그 다음으로 《신당서·유귀전(新唐書·流鬼傳)》에 기재된 탐라를 보면

> 용삭(龍朔)[4] 초기에 담라(儋羅)라고 하는 나라의 왕 유리도라(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어 입조하였다. 그 나라는 신라 무주(武州) 남쪽의 섬에 자리잡고 있다. 풍속은 소박하고도 고루하다. 큰 도야지 가죽을 입고 여름에는 가죽집에서

2) 창(昌)은 백제 위덕왕(威德王)의 이름.
3) 석달길이란 길의 이정, 석달을 가야할 길.
4) 용삭(龍朔)은 당 고종의 연호(A.D 661~663).

살고 겨울에는 글집에서 산다. 그 땅에 오곡이 자라고 농사일에 쇠스랑으로써 흙을 파서 고르고 소를 쓸 줄 모른다. 처음엔 백제에 예속되어 있었다. 인덕(麟德)[5] 년간에 추장이 입조하여 황제를 따라 태산에 간 적이 있다. 뒤에 와서는 신라에 예속되었다.

여기서 탐라를 당조 초기에는 담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라는 탐라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신라 무주의 남쪽에 있는 섬나라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무주는 오늘의 광주시, 광산군, 일대를 말한다). 다음으로, 돼지가죽을 입는다는 것은《삼국지》,《후한서》에서 이미 본 바이다. 그러나 여름에 가죽집에 산다는 것은 흥미있는 새로운 변화다. 이는 탐라주택발전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셋째로, 그 시기의 탐라의 경제형태도 목축을 위주로 하던 데서부터 농업경제가 뚜렷한 지위에 오른 것을 보여준다. 비록 쇠스랑으로써 농사를 짓는 정도로 낙후한 생산방식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오곡을 생산하는 것은 대견한 일이다. 넷째로, 탐라와 백제, 탐라와 신라의 정치관계를 알 수 있고 또 탐라와 당나라 사이의 내왕관계도 볼 수 있다. 여기서 탐라는 백제, 신라와 같이 큰 나라에 예속되어 왔으며 또 거기의 통치자(왕이든 추장이든)는 당나라와 직접 내왕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탐라의 정치적 지위일 것이다.

마감으로《원사(元史)》에 기재된 탐라를 보기로 한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지원(至元) 6년(A.D 1269)의 기재를 보면

> 7월에 황제는 명위장군 도통령 탈타아, 무덕장군 통령 왕국장, 무략장군 부통령 유걸을 파견하여 탐라 등지의 길을 돌아보게 하면서 식(植)[6]에게 관리를 간택해서 길을 안내하라는 조서를 내리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탐라로부터 수로로 남송이나 일본으로 가는 것이 아주 수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그리고 지원 10년의 4월과 6월에는

> 4월에 경략사 흔도는 홍다구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로 해서 탐라성을 공략하고 김통정 등을 사로잡아 조서에 쫓아 주살해 버렸다. 6월에 식은 그의 대장군 김흔을 보내어 제주를 공략했다는 표를 주달하였다.

라고 썼다. 이 두 대목에서 쿠빌라이의 탐라점령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쿠빌라이는 남송을 평정하고 일본을 원정할 목적으로 고려왕 왕식을 협박하여 탐라를 친 것이다. 탐라침점은 탐라 자체보다도 대외 원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쿠빌라이에게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임연의 여당 김통정을 토벌한다는 구실을 내건 것이다. 물론 역도숙청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할 수 있으나 쿠

5) 인덕(麟德)은 당 고종의 연호.(A.D 664~665)
6) 식(植)은 고려 24대 왕 왕식(1219~1274), 원종(元宗).

빌라이의 탐라강점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몽고의 탐라강점은 탐라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부담으로 된 것이다.

《원사》에는 《외이전》 가운데 《탐라전》을 한 단락 따로 두고 있다. 그대로 옮겨 보면

> 탐라는 고려의 여국(與國)이다. 세조는 고려를 신복(臣服)시킨 다음 탐라를 남송과 일본에 대한 요충지로서 주의를 돌리었다. 지원 6년 7월에 병위장군 도통령 탈탈아, 무덕장군 통령 왕국창, 무략장군 부통 유걸을 파견하여 탐라 등지의 길을 돌아보게 하고 고려국왕 왕식에게 관리를 간택하여 길을 안내해 보내라고 조서를 내리었다. 그 당시 고려의 반역적당 임연의 여당인 김통정이 도망쳐 탐라에 숨어 있었다. 9년에 중서성과 추밀원의 신하들이 상의하기를 《가령 일본에 대한 일을 먼저하게 되면 그들의 순역여부의 동정을 알아낼 수 없는 바 뒷 말이 있을 염려가 있으니까 먼저 탐라를 평정하고 나서 일본의 순종여부를 보아가면서 천천히 도모할 것이다. 황차 탐라국왕은 일찍부터 조근하였는데 지금은 그 임금을 역도들이 내쫓고 그 성을 차지하고 난을 일으키고 있으니만큼 군사를 일으켜 그를 토벌한다면 의(義)를 앞세운 것으로 된다》라고 하였다.
>
> 10년 정월에 정략사 흔도, 사추 및 흥다구 등에 명하여 대소 병선 108척을 거느리고 탐라의 적당을 쳤다. 6월에 평정하고나서 그 땅에 탐라국 초토사를 세우고 진변군 1,700명을 주둔시켰다. 그 공물부세로서 해마다 모시포(毛施布) 100필을 진상하게 했다. 초토사는 후에 군민도달로화적총관부로 고쳤다가 또 군민안무사로 고치었다.
>
> 31년에 고려왕이 주달하기를 탐라땅은 조종때로부터 자기나라에 신속되었었는데 임연적당을 평정하고나서 윤방보가 초토부사로 되면서 직접 조정에 귀속될 계책으로 꾸민 것인만큼 예대로 되게 하여 달라고 간청했다. 황제가 이르기를 《이는 세소한 일이거니 고려에 돌려주어 귀속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곧 그 때로부터 다시금 고려에 예속되었다.

이 《탐라전》은 탐라에 대한 《원사》의 기록을 종합한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수 있다.

첫째, 탐라는 오래전부터 고려의 여국으로서 원나라와 남송, 원나라와 왜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요충지였다. 둘째, 원나라 통치집단은 대외원정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탐라부터 강점한 것이다. 그들의 중서성과 추밀원의 신하들이 의결한 것으로 보면 원나라의 탐라강점의 목적은 탐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원정에 있었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 그렇지만 원의 강점기간에 매년 모시포를 100필씩 공물로 바쳤고 주둔군 1,700명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탐라인이 큰 수탈을 당하고 큰 재난 속에 모대기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셋째, 고려는 외교활동으로서 끝내 탐라를 원나라의 손에서 도로 찾아 주권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탐라는 약

육강식의 희생물이었다는 것이 뚜렷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탐라는 중국정사에서 여러 모로 적지 않게 기술되고 있다. 이런 기재는 물론 이러저러한 제한성이 있기는 하지만 탐라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문헌이라고 보게 된다. 즉 탐라의 사회형태, 경제 문화 생활, 그리고 정치형태의 연혁, 국제관계사에서의 역할 혹은 차지한 위치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탐라의 백성들도 외래 침략자와 국내의 역적들의 반란으로 해서 비참한 궁지에서 살아왔다는 것도 짐작이 간다. 신화에서 보는 바와 같은 탐라는 어디까지나 미래를 동경하는 아름다운 환상이었을 따름이다. 탐라의 실태는 중국정사에서도 반영된, 글집에서 살며 쿠빌라이의 강점하에 모대기던 역경, 그것이었을 것이다.

1. 三國志

"又有州胡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裡勢. 乘船往來, 市買韓中."—《三國志》 第30卷, 852頁.

2. 後漢書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髡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貨市韓中/"—《後漢書》 第85卷, 2820頁.

3. 隋 書

① "平陳之歲, 有一戰船漂至海東躭牟羅國, 其船得還, 經于百濟, 昌資送之甚厚, 并遣使奉表賀平陳."—《隋書》 第81卷, 1819頁.

② "其南海行三月, 有聃牟羅國, 南北千餘里, 東西數百里, 土多〇鹿, 附庸於百濟."—《隋書》 第81卷, 1820頁.

③ "明年, 上遣文林郎裴清使於倭國. 度百濟, 行至竹島, 南望耽羅國, 經都斯麻國, 迥在大海中."—《隋書》 第81卷, 1827頁.

4. 北 史

① "其南海行三月, 有耽牟羅國, 南北千餘里, 東西數百里, 土多〇鹿, 附庸于百濟."—《北史》 第94卷, 3122頁.

② "明年, 上遣文林郎裴清使於倭國. 度百濟, 行至竹島, 南望耽羅國, 經都斯麻國, 迥在大海中."—《北史》 第94卷, 3137頁.

5. 新唐書

"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冉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 夏居草屋, 多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新唐書》 第220卷, 6210頁.

6. 元 史

① "七月, 帝遣明威將軍都統領脫朶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相視耽羅等處道路, 詔植選官引達, 以人言耽羅海道往南宗, 日本甚易故也."—《元史》 第208

卷, 4615頁.

② "五月(指至之 8年 5月一筆者), 忻都與史樞, 洪茶丘大敗珍島賊, 獲承化侯斬之, 其黨金通精走耽羅."—《元史》第208卷, 4619頁.

③ "四月(指至元 10年 4月一筆者), 經略史忻都同洪茶丘領兵入海, 攻拔耽羅城, 禽金通精等, 奉詔誅之. 六月, 植遣其大將軍金忻裴奏攻破濟州."—《元史》第208卷, 4619頁.

④ "耽羅, 高麗與國也. 世祖既臣服高麗, 以耽羅爲南宗, 日本衝要, 亦注意焉. 至元六年七月, 遣明威將軍都統領脫朶兒 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往視耽羅等處道路, 詔植選國王王植還官導送. 時高麗叛賊林衍者, 有餘黨金通精遁入耽羅. 九年, 中書省臣及樞密院臣議曰. '若先有事日本, 未見其逆順之情. 恐有後辭, 可先平耽羅, 然後覘日本從否, 徐議其事. 且耽羅國王嘗來朝覲, 金叛賊逐其主, 據其城以亂, 擧兵討之, 義所先也.'

十年正月, 命經略使忻都, 史樞及洪茶丘等率兵船大小百有八艘, 討耽羅賊黨. 六月, 平之, 於其地立耽羅國招討司, 屯鎭邊軍七百人. 其貢賦歲進毛施布百匹. 招討司後改爲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 又改爲軍民安撫司.

三十一年, 高麗王上言, 耽羅之地, 自祖宗以來臣屬其國; 林衍逆黨旣平之後, 尹邦寶充招討副使, 以計求徑隷朝廷, 乞仍舊. 帝曰: '此小事, 可使還屬高麗.' 自是遂復隷高麗."—《元史》第208卷, 4624~4625頁.

日本에서의 濟州島 硏究 現況

梁 聖 宗(日本東京 耽羅硏究會)

1. 머 리 말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본토에서부터 떨어져 있어 隔絶性과 環海性 그리고 停滯性이 있는 섬이었다. 이러한 제주도의 연구는 한국내에서도 최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와 제주도 연구회, 제주도사 연구회 등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연구회에 의해서 활발히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일본에서도 근래에 와서 제주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구가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에서 근래의 학술적인 제주도 연구는 泉靖一씨에 의해서였고 그의 저작 「濟州島」(동경대 출판부 1966년)는 제주도 연구의 성과요, 제주도 연구방법의 고전이라고 일본내에서는 정평을 얻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상싶다. 그의 「濟州島」는 제주도 연구의 기초문헌으로 높이 평가받는 셈이다. 그후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경기대학 장주근 교수와 제주대학 현용준 교수 등이 교류계획의 일환으로 동